

東大新聞

금주일언

비든 생각을 항상 일으며 행실이 깨끗하면 악을 사라지게 한다. 스스로 억제하여 법으로 살고 범하지 않으면 좋은 이름이 더한다.

법규경·방일종 180절

1997년(불기 2541년) 11월 24일(월요일) 제 1237호 주간 / 1964.1.1 등록번호 다-10 / 발행인 송석구 / 편집인 김주환 / 부주관 조장택 / 편집국장 이익영 / 편집장 김기영 /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02)260-3491~2 FAX(02)279-1270 / 780-714 경북 경주시 생장동 707(0561)770-2057

사시 2차 3명 합격
최종발표 다음달 18일

서울-구준서·이미성... 경주-백재욱·이부용 당선

서울캠 중선위 '개표' 하루 연기 등 운영미숙·경주캠 '회의 불참' 등 책임결여

제39회 사법고시 2차 시험에서 박윤석(법87층), 오수환(법88층), 신병룡(법88층)이 합격했다. 이번 사법고시 2차 시험에는 1차 시험에 합격한 본교 졸업생 22명이 지원했는데 이중, 3명이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사법고시 3차 시험인 면접은 오는 12월 12일, 13일 양일간 치러지며 발표는 18일로 예정되어 있다.

청화대 교환학생선발 대정대는 학위 유학생

연구교류처(처장=박기덕·수학) 학술교류부는 중국 청화대학교 교환학생을 내일(25일)까지 선발한다.

청화대학교 자체결연을 맺은 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선발인원은 모두 3명으로 선발분야는 개설 전학과이다.

지원자격은 현재 학부 2학년 재학생으로 평균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하고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중국어에 능통한 학생이어야 한다.

교환학생들은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유지 혜택을 받는다. 수업료의 반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며 파견대학에서의 취득성적 인정과 청화대학교로부터 등록금과 기숙사비 10%면제의 혜택을 받게 된다.

선발방법은 △학교성적(30%) △중국어 테스트(필기30%, 회화30%) △면접 10%이다.

학술교류부는 이와 함께 일본 대정대학 학위과정 파견유학생도 오는 27일까지 대정대학 전학과를 분야로 2명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학부 '98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석·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학부, 석사, 박사과정 성적(평균점수) 3.3이상이어야 하고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파견조건은 등록금 면제이며, 지원할 경우 소정양식을 서울캠은 학술교류부에 경주캠은 학술연구부에 제출하면 된다.

공로명 석좌교수

아시아 외교 특별강연

본교 아시아 지역학부 공로명 석좌교수가 오는 25일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세미나 3실에서 특별강연을 한다.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여분 정도 '한국의 대 아시아 외교'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서울캠 제30대 총학생회장 정·부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 김으로 입후보한 구준서(전지공4)·이미성(국교3)조가 허창수(정의3)·김준환(건축3)조를 제치고 54.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21일 학생회관 로비에서 진행된 개표는 총유권자 1만8백11명 중 5천4백29명이 투표해 50.2%의 투표율을 나타냈으며 구준서·이미성조는 2천9백68표(54.6%) △허창수·김준환조는 2천2백36표(41.1%) △무효표 2백25표로 나타났다.

지역별 득표상황을 살펴보면(구준서·이미성조: 허창수·김준환조 순서로) △1지역(불교대·예술대)=2백60:88 △2지역(문과대·이과대)=3백81:3백81 △3지역(사과대·법대)=1백23:2백64 △4지역(경상대)=3백23:2백83 △5지역(생자대)=1백42:1백23 △6지역(사법대)=4백19:2백09 △7지역(공과대)=6백29:5백72 △8지역(야간강좌)=6백91:3백16 이다.

제13대 총학생회장 정·부학생

회장으로 단독 입후보한 이경원(철3)·이가양(인문학부2)조는 55.5%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89.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이 수치는 총유권자 3천7백76명 중 2천97명이 투표해 55.5%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중 찬성성=1천8백80표(89.6%) △반대=1백46표(6%) △무효=75표 △오차=4표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원래 오후 8시30분인 투표마감시간이 밤11시까지 미뤄지고, 20일로 예정되었던 개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위장=박병제·철4)의 '총유권자 계산착오'로 투표를 50% 미달소통을 겪어 다음달(21일)로 연장되는 등 운영에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경주캠은 지난 19일 치러진 제15대 총학생회 선거결과 단독 후보로 입후보한 백재욱(법3)·이부용(경영4)조가 61.98%의 투표율을 보이며 당선됐다.

총 유권자 6천1백25명(4학년제외) 중 3천7백96명이 투표해 찬성성=3천34표(79.92%) △반대=6백



사진은 지난 21일 학생회관 로비에서 제30대 총학생회, 제13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하는 모습. 오인택 기자

36표(16.75%) △무효=1백18표(3.10%) △불성=9표(0.23%) △오차=1표의 결과를 보였다. 건물별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원효관(불문대, 인문대)=찬성:9백9표, 반대:2백32표, 투표율:80.42% △자연과학관=찬성:4백48표, 반대:1백34표, 투표율:61.91% △진흥관(법정대, 상경대)=찬성:9백31표, 반대:1백30

표, 투표율:64.12% △한의학관(법3·4 포함)=찬성:2백18표, 반대:63표, 총 투표율:57.73% △의학관=찬성:1백86표, 반대:39표, 투표율:80.80% △진흥관(이부용)=찬성:2백85표, 반대:23표, 투표율:54.15%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번 총선거 기간(지난 18일)중에 열린 중선위 회의에서 중선위 위원들이 과반수(11

본교 2년연속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선정 배경 불교 축으로한 '한국학' 특색·대학원중심 '특성화' 주력

본교는 얼마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교수 논문발표 실적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데 이어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교육부평가는 1백2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생선발 △열린교육 △대학특성화 △교육의 수월성 △세계화△정보화 △연구의 수월성 등 분야로 나눠 사업계획서와 현지실사가 진행되었다. 평가결과, 본교가 대학의 특성화분야에서 우수대학으로 선정돼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작년 학생선발과 열린교육제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3억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대학 특성화부분에서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를 받은 본교의 선정 경위는 불교학을 축으로 한국학 연구 중심대학이라는 특성화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작년의 선별적 단계 특성화에서 올해로 2차년도에 맞이한 본교는 한국학연구중심과 정보통신분야를 축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등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이번에 인정을 받게된 한국학 분야는 불교학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는 독자적인 한국학을 지향하여 장기적으로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학 연구 중심대학으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본교가 지니고 있는 한국문학, 역사학, 철학 등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전통과 발전을 국문학등 인접 학문과 상호 연계하여 발전시킬 때 본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한국학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사신 불교를 연구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비교우위를 지킬수 있다. 이를 위해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중·불교학)은 국내외 학술회의 준비와 함께 한국 신사상연구, 불교문화사전, 한국의 천태사상연구 등의 출간작업과 조산원조실록의 불교사료집의 간행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뉴욕주립대와 협약을 통해 원효전집의 영문번역사업과 해인사 고리대장전 전산화사업 등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전문인력 양성분야'는 다양해져가는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이론교육과 현장지향적인 교과과정을 도입하여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대처할수 있는 인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분야를 특화하면서 이와 연계할 수 있는 공예분야나 경상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대학 특성화에 대한 향후의

계획들은 앞으로 대학원 중심제로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따라 불교철학대학원과 한국어교육원 설립, 정보통신 연구원과 연극영상예술대학원 설립등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한 교수논문 평가에서 자연계열 교수는 1인당 평균 5.02편으로 1위를, 인문사회계열은 1인당 평균 3.84편으로 2위를 차지해 본교 교수들이 타 대학보다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사회는 점점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세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대학 개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본교의 2년연속 교육개혁우수대학 선정과 교수는 논문실적평가에서 우수결과를 앞으로 다가올 무한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대학, 21세기 3대 명문사학으로 가는 기록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사람 자원봉사자 고이원 방문지도

참사람 봉사단(단장=송석구·철학)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구형산하 고이원인 남산원을 방문, 원생들에게 개별지도도를 실시한다.

자원봉사자들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이번 학습지도에는 영어, 수학, 피아노 세분야에 총 13명의 학생들이 지원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자원봉사 학생들은 중구형 가정복지과의 한 관계자와 함께 남산원을 방문했으며, 이날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이번 학습지도는 봉사자와 원생들이 일대일로 짝을 이뤄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자원봉사자 신청은 장학과에서 계속 접수중이다.

이번 개별학습지도와 관련해 참사람 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본교와 중구형간의 정보·문화 등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고 밝히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 및 본교의 건학이념인 자비 또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백산맥의 첫장은 동대신문에서 열렸습니다.

육체는 아팠지름을 닮고
정신은 고향의 혼을 좇아
나를 통한 점의 세기
선으로 이은 원의 세계로 펼쳐지 '하방'을 옮겨 잡으렵니다

...
"장충공원의 벤치는 비어있었지?
못다한 릴케의 아이기를 마저해야 하잖아?"

1963년 동대신문 제 1회 창작문학상 수상자 조장래의 당선소감중에서

제35회 동대학상 작품모집

△ 모집분야 인문과학상·분상 및 가작(분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분상 및 가작(분상 50만원, 가작 25만원) △ 응모요령: 2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80매 내외의 화승노튼 △ 응모자격: 서울 및 경기권내 소재 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199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 시상식 발표: 1998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11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 모집분야 지부분: 3편내외 소설부분: 2백자 원고지 80매 내외 평론부분: 2백자 원고지 80매 내외 △ 응모자격: 서울 및 경기권내 소재 학생 (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1997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 시상: 시부분: 분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분: 분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분: 분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 시상식 발표: 1998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비탈진陰地

第一回本社 創作文學賞獎勵賞

精進을 約束하며

趙 廷 來

精進을 約束하며... (text continues)

(1)

생협 드디어 출범 ... 학내복지 향상 기대

신규복지시설 조항등 타결 · 27일 창립총회 개최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화 생협)가 오는 27일 3년여간의 발기인회 활동을 접고 드디어 출범을 한다.

그동안 신규 복지 시설의 설치, 시설물의 개·보수 및 교체, 복지환경 개선기금 조성 및 사용 등에 관한 약정부분에서 학교측과의 합의를 찾지 못해 생협 창립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7일 진행된 24차 생활운영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모든 사항이 다음과 같이 통과·결정됨에 따라 '생협 창립'의 물고기가 트인 것이다.

△제7조 (신규 복지 시설의 설치) 대학교 또는 생협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설치되는 복지 시설의 기본 시설물은 학교에서 하며, 영입시설물은 생협 또는 위탁운영자가 설치한다. △제8조 (시설물의

개·보수 및 교체) 생협에 위임된 복지시설의 시설물의 개·보수 및 교체는 생협 또는 위탁운영자가 한다. 다만, 복지시설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본시설물의 전체 개·보수 및 교체에 필요한 경우 제9조의 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학교 교비로 지원한다.

△제9조 (복지환경 개선기금 조성 및 사용) 복지시설 임대료 인한 보증금의 이자 수입 및 월간 임대료와 생협의 이익금 중 일부로 복지환경 개선 기금을 조성하여 학교가 관리하며, 생협의 요청에 따라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의 개·보수 및 교체 등에 사용하며, 그 집행결과를 공개하고 당해 연도 사용 잔액은 차기 연도도 이월 사용 또는 적립한다.

이와 같은 사항의 결정이 생협

출범을 이끌어 낸 것이고, 이에 따라 창립 총회가 11월 27일 오후 4시 30분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출석 발기인 대표 확인 및 성원 보고 △개회선언 △국민의례 △발기인회 경과 보고 △발기인회 위원장 인사 △대의원 확정 △의사 진행 일정 확인 및 의안 상정 △의안 심사 및 결의(정관 확정, 임원 선출(감사, 이사, 생협 이사장), 기타사항) △생협 이사장 당선 인사 △의사록 확인 △폐회 선언 등의 순으로 열린다.

창립 총회가 끝난 후 개교90주년 기념문화관 그릴 식당에서는 같은 날 오후 6시부터 기념식 및 연회가 이어진다. 이 날 기념식은 조합 창립 경과 보고, 조합 이사장 기념사, 총장 격려사, 교수회장 축사, 생협 중앙회 축사 등의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생협 창립과 관련해 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 김진철(정치외교학) 교수는 "대학 구성원들 간에 상호 협동정신이 생기게 되며 대학문화는 더욱 더 윤택해 지고, 나아가 대학 구성원의 공동복지가 증진될 것"이라며 "동국이라는 생활공간 안에서 대학의 전 구성원들이 양질의 대학생활을 영위, 대학공동체 문화의 형성과 발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생협 창립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생협은 27일 당일에 한해 교내 식당에서 쌀 가격으로 식사를 배급하고,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서점, 문구점, 잡화점, 안경점, 사진관에서 할인판매를 하는 등 창립총회 주간 부대행사를 실시한다.



대중속으로 ... '도심 부처'를 만나자 도심속의 현대인 포교법당인 대각전이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에 완공됐다. 사진 유철주 기자

회전무대

승배꼭질

0...총학생회 투표 마지막날까지 투표율이 50%에 못 미치는 선거관계자들은 마지막 야간강좌 투표에 총력을 다했는데, 유권자 모셔오기(?) 전략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표율이 낮아 투표마감시간을 9시부터 11시로 연기했다.

이는 학생들과의 약속을 어겨서라도 대표자를 '만들고야' 말겠다는 전술(?)인 듯.

이에 선거관계자 유권자 모셔오기(?)에 박자를 가하며 한마디, "숨어있는 1%를 찾아라!!"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알, "숨어있는 임원(?)부터 지켜라!!"

투총!!!

0...긴급입수, 특종 총대수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학생회 가상 시나리오(?)

1)총학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고 발표한다.

2)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서는 선거인 명부 확인을 요청할 것이다.

3)이에 대한 회의를 하고 중선위 총사퇴를 심각하게 발표한다.

4)실각한 척 하다가 시간을 택해 발표한다. 내용은 바로 "어! 유권자 숫자 계산을 잘못했네요. 이런 개표 합시다??"

바위치기(?)

0...본관을 향해 던져라? 야간강좌 총학생의 1차 동맹휴업이 있었던 지난 18일 저녁, 4백여명의 학생들은 동국관 앞 광장에 모여 집회를 갖고 취업자전환 확대철폐를 요구했는데, 이어서 학생들은 본관으로 가서 합성을 지르며 계란을 던지는 등의 과열(?) 시위를 했다고.

이에 결의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 알, "계란으로 본관치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제시대

0..."나랑 같은 사람이 한명 더(?)" 알아본즉,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두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1백만명이나 된다는 데.

이로 인해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한 사람의 실수로, 엄청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분과 같은 것인데, 관리가 이렇게 소홀해서야.

이에 본 회전무대자 알, "그 사람 혹시 키보드(?)라이터"

야총 취업자특별전형 논란

본관 앞 시위 및 선전전 ... 무응답시 2차휴업검토

제13대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김선문·경제4 이하 야총)는 지난 18일, 하루동안 동맹휴업을 실시했다. 이날 동맹휴업은 학생들의 수업 거부와 동국관앞에서 실시된 '야간강좌 교육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오후 5시부터 열린 결의대회는 △박선영 신방과 학생회장의 '학교의 무원칙한 학사행정'에 대한 규탄 발언 △김선문 야총회장의 '동맹휴업 경과보고 및 학교에 대한 요구안 발표. △야간강좌 학생들의 자유발언 △14대 야간강좌 총학생회 회장 당선자 이종환의 '이후 투쟁방향과 결의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학생들은 본관 앞으로 다시 모여 계란을 던지는 등의 시위와 중앙도서관 앞에서의 선전전을 계속하고 이날 결의대회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김선문 야총회장은 "기만적인 취업자 특별전형 70% 확대선발 철폐, 야간강좌 학생들에 대한 권리신장과 야간교육 정상화 이력, 야간강좌 학사행정'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보장'등을 요구하고 "이 사항들에 대한 학교의 답변이 오는

28일까지 없을 경우 즉각적인 2차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각 건물 난방 '후끈'

내년 4월 20일까지 ... 1백 71일간 운영

관리처(처장=김종욱) 관계자는 교내 각 건물의 난방을 내년 4월 20일까지, 1백71일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건물별 난방은 오전 8시부터 실시해 △학생회관, 원흥3관, 체육부 사무실은 오후 6시까지 △본관은 오후 6시까지 △학림관은 오후 7시까지 △원흥1관, 원흥2관, 과학관은 오후 9시까지 △혜화관, 동국관, 90주년 기념문화관, 교수회관, 명진관은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도서관과 계산고시학사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실시되며 △가건물, 박물관, 체육관, 학관단, 수영장은 난로로 △예술극장, 중앙당, 각종 전시설, 세미나실은 공조시스템으로 △문경관 속소는 온돌로 각각 개별 난방을 한다.

한편, 시위에는 약 4백여명 학생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범대 소강당 개보수

관리처(처장=김종욱) 시설과는 지난 15일부터 사범대 지하 소강당 개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소강당의 벽, 바닥, 천장 등이 대폭 보수된다. 더불어 음향, 조명, 냉난방 시설 등이 설치되고 의자도 교체된다.

이와 관련해 시설과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계최초 대중문화·문학 진단

한국문학연구소 오는 28일 학술회의 실시

한국문학연구소(소장=홍기삼·국문학)는 오는 28일 오후 1시30분부터 명진관(A104)에서 '대중문화와 대중문학'이라는 주제로 제17차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포스트문학의 도전, 대중문화론의 성찰 등으로 최근 학문적·비평적 논쟁 부각되고 있는 대중문학, 특히 한국 대중문학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이날 일정은 △홍기삼(국문학)교수의 기조강연 후 △황중연(국문학)교수의 '대중사회의 대중문학' △홍신선(국문학)교수의 '현대시와

대중성' △장영우(한국어문학부)교수의 '대중소설의 유형과 그 특징' △이종대 평론가의 '근대극 텍스트에 나타난 대중성의 문제'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기조강연에서 홍기삼(국문학)교수는 대중문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고, 이 속에서 대중문학은 어떤 의미를 이룰 수 있는가를 진단한다.

한편 이종대 평론가는 "학계에서 대중문학을 진단하고 검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학술회의의 의의를 밝혔다.

'제1회 컴퓨터 경진대회' 시상

금상 장두희군 ... 본선응시자 '정보처리인증서' 수여

'제1회 컴퓨터 경진대회' 입상자 시상식이 오늘(24일) 오후 4시 교무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지난 15일 컴퓨터 교육원(원장=홍영식·컴퓨터공학)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82명이 예선에 응시해 이중 52명이 예선을 통과했고, 본선 응시자는 2명의 결시로 50명이었다.

대회결과, 금상 1명, 은상과 동상은 각각 4명, 장려상에는 10명이 뽑혔고 금상은 장두희(교육3)군의 수

상이 결정됐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각각 △금상 1백만원 △은상 40만원 △동상 20만원 △장려상 10만원이 주어지며, 본선 응시자 전원에게 정보처리인증서가 수여된다.

한편 컴퓨터 교육원의 신영배 주임은 "예산보다 지원율이 저조했다. 앞으로 매년 열릴 예정인 이 대회에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과소식

사회과학계열

제3대 정·부회장 선거에 송희문·김중진교가 55%의 투표율에 82%의 지지율로 당선.

국어교육과

제30대 정·부회장 선거에 김희정·전병미 교가 85.5%의 참여율, 94.8%의 지지율로 당선.

역사교육과

제30대 정·부회장 선거에 임후보한 이대길·김혜선 교가 78.9%의 투표율에 94%의 지지율로 당선.

수학교육과

제30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한경호·박연희 교가 83.9%의 투표율에 92.3%의 지지율로 당선.

가정교육과

제25대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박선애·조주영 교가 투표율 80.2%에 93.8%의 지지율로 당선.

체육교육과

제29대 학생회장 선거에 임종익·오경수 교가 57%의 투표율에 60%의 지지율로 당선.

연극영상학부

제39대 학생회장 선거에 배광수교가 69.1%의 투표율에 81.9%의 지지율로 당선.

초·대·합·니·다

출범! 97

생활협동조합창립총회

우리 생협 발기인회에서는 3년여의 산고 끝에 명실상부한 대학 구성원들의 생활공동체로서 "생활협동조합"으로 출범 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1부〉

- ◆ 행사명 : 창립총회
- ◆ 일 시 : 1997. 11. 27(목), 16:30~17:30
- ◆ 장 소 : 개교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예술극장

〈2부〉

- ◆ 행사명 : 기념식 및 연회
- ◆ 일 시 : 1997. 11. 27(목), 18:00~19:30
- ◆ 장 소 : 개교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그릴 식당

〈창립 총회 주간 부대 행사〉

매 장 명	운영형태	품 목	할인율	판매가격	비 고
동국관 교직원 식당	직영	우족방		2,000	500명분 한정 판매
동국관 학생식당	"	닭도리탕 (전반으로 만든 사료로 키운 닭)		500	2,500명분 "
다량관 학생식당	"	보쌈 정식 (전반으로 키운 돼지)		500	4,000명분 "
다량관 교직원 식당	임대	우족방, 산채 비빔밥		2,000	
문화관 그릴	"	소고기 비빔밥		1,000	
보리수	직영	돈까스		1,000	500명분 한정 판매
아리수	"	분식류(라면+김밥)		500	"
그루터기	"	분식류(라면+김밥)		500	"
명진 가든	임대	라면, 우동, 김밥		500	"
서점	직영	단행본, 사전류, 전공 서적류	10~20%		
다량관 문구점	임대	필기류, 노트류, 바인더 등	5%		
동국관 문구점	"		10%		
잡화점	"	카세트, 가방, 옷, 향수, 핸드폰·패배	10~20%		
안경점	"	테, 렌즈 등	20%		콘택트 렌즈 제외
사진관	"	자동 카메라용 필름 / 일화용 필름	15% / 50%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DONGGUK UNIVERSITY CO-OPERATIVE · SINCE 1994

배앗긴 국내시장

시사논단

사설

'외국자본 유입 국내시장 설 곳 없다'

외채 빌릴 수 밖에 없는 제반여건 ... 국민부담만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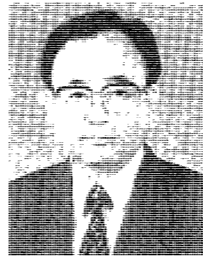
경제이론에서는 시장이란 단순히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공간일 뿐 어느 쪽에 치우친 없는 중립적 기구로 보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80년대부터 시장을 조직하고 규율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이 침체되기 시작하다니 이제는 사용언어, 통화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

신세가 되고 있다. 그 뿐인가, 그들은 한국에까지 와서 시장개척에 투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빛까지 내어 전국에 칸 쉼신만이 바로 그들에게는 상품판매를 위한 고속도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투자자본은 처음 60년대와 70년대엔 생산시설에 투자하여 우리에게 기술부스러기라도 남겨주었는데 80년대부터는

부동산, 주식, 예술품이나 골동품에 투자하여 우리에게 종이로 만든 달러화를 잔뜩 안겨 준다. 갑자기 달러자금이 늘어나니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한 정부는 외국의 부동산투기, 위험한 벤처자본에 투자하거나 개인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까지도 부추겼다.



이재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다른 개도국들은 자립경제를 위해 민족 자체의 내부적 기술을 축적하면서 힘겹게 자축하고 투자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빌려

차기 학생회에 바란다

서울·경주캠퍼스 학생회 선거가 막을 내렸다. 학생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 선거 진행과정상의 치명적인 실수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불거져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대중들과 같이 행동하려는 모습이 보여져야한다. 학생회가 자신의 기반인 학생들과 동맹이 된 사고와 행동을 보이고 대중의 목소리를

다음으로 학생회 혁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선거기간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학생회에 대한 비판들을 수렴해야 할 것이며, 특히 경주캠퍼스의 경우 지난 총학생회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실추된 학생회의 신뢰회복과 한학기 이상의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이러한 노력이 다음 학생회를 책임질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매년 똑같은 모습, 똑같은 내용으로 채워지는 전원 일률적인 사업들을 보다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지속적인 준비가 있어야 한다.

동국종합정보시스템 2545?

마우스로 수강신청에서 학사업무까지

정보화물결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동국종합정보시스템2545(이하 2545)가 이용되면서 학사·연구·행정 업무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전자계산소(소장:김기현·컴퓨터공학)와 대우정보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 완성 막바지 단계에 이른 2545는 주컴퓨터를 중심으로한 중앙집중식 처리방식에서 벗어나 Client/Server 방식

를 수준이 이에 모든 동학인이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과 학사행정 분야를 통합해 하나의 정보시스템으로 구축시켜 전산자료의 정확성, 일관성을 보장하며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한 자료의 축적기술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부여함으로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2545의 가장 큰 장점이다.

9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 수강신청·점정도 종합정보시스템의 결실이다. 학생들은 교내 컴퓨터실습실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여 수강신청을 하면서 도착화면 시간표를 볼 수 있고, 실습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원격접속방식으로 수강신청을 할 수 있었다. 정보마당은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서 학사정보, 학생정보, 취업정보, 사립방 등 학생들이 원하는 정보를 분과 취업과열 현황과비와 해화관 1층 로비에서 시범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서관 로비와 정보매체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완성품이 아닌 이상 프로그램운영에 있어 미흡한 점도 있다. 아직 2545 프로그램이 70%만 운영되고 있어 자료입력을 새로 입력하거나 추가로 입력하고 개발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50명의



교수만 시범이용하고 있어 2545의 홍보 및 이용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초기화면에서 사용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고는 하지만 개인자료유출과 학내정보누출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해커에 의한 프로그램의 손상과 유출 가능성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계산소 김광수 과장은 "이번 학기 중에 해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학교측에서 해커를 중징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

현재는 학사행정업무 위주로 개발되어 교수, 학생의 정보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분야가 한정되어 있지만 2545는 새로운 업무를 계속 추가하여 분과환경에 맞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서관 정보시스템과 연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자결제 등과 같은 사무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다. 분과가 타대학과 차별화된 최신 정보기술의 종합정보시스템을 보유한 만큼 정보화물결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발돋움할 날도 머지않았다. 오인택 기자

개달음의 범당 '대각전' 개원

어느덧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다. 차가운 날씨와 사회불안으로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 우리를 가슴에 한줄기 빛이 될 공간이 마련되었다. 지난 21일 90주년기념문화관에 조성된 개달음의 범당 '대각전(大覺殿)'이 그곳이다.

개하는 도량으로 불교홍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각전은 원불전으로서 불상 봉안의 장소이기도 하다. 그동안 동국 발전과 불교종파법원 건립을 위해 발전기금 기부자들의 정성을 모아 1차로 2천평의 원불을 봉안하게 되었으며 1만불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각전은 종파대학의 특성을 살린 독특한 공간으로서 나름의 의미를 부여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건축문화상을 수상한 현대적 문화공간인 90주년기념문화관에 전통적인 불교 건축양식을 창의적으로 응용해 지어진 대각전은 단순히 신앙적인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목표로 한 강의실의 기능도 갖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아와 명상' 수업을 하는데 범당이 절대부족해 참성을 강의실에서 해야 했던 안타까움도 이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각전은 전통사찰의 3분형식을 수직적으로 재해석하여 대각전의 공간을 길이나 축이 아닌 영역으로 해석하고 통합된 공간배치와 상징적 의미를 갖추고 있어 현대 사찰건축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 대각전 범당이 현재 불교의 건학이념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정각원 범당과 함께 참사람 양성을 위한 인성교육의 장소로서 학생들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자들에게 자치해 대중들이 스스로 찾아가는 도량이지만 도심포교당은 대중속에서 함

을 기대해 본다.

에너지와 정보통신의 선경



도전한다는 건 꿈이 있다는 거다.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다. 어릴적 운동회때 계주시합, 팽팽한 긴장 속에 느꼈던 짜릿한 승부의 흥동. 거기에 역전의 기대와 그 속에 발휘될 자신의 탁월한 활약에 대한 꿈이 있다. 인생의 승부도 이처럼 겉으로 보이는 순서대로 정해지지는 않는 법.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만들어가는 최고의 도전이야말로 꿈의 의미를 아는 젊음의 선택이다.

선경은 에너지·화학과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늘과 땅에 새로운 자원개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선경.

선경그룹 주요회사 SK는 유공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에너지·화학 SK(선경안드라/SC/JSK) ■에너지·화학 SK(유기화학) ■정보통신 SK(텔레콤/선경통신/SK컴퓨터통신/대한텔레콤/이더테크) ■금융 SK(선경증권) ■건설 SK(선경건설) ■호텔·레저 SK(세라호텔/세라호텔) ■물류 SK(에스) ■종합사업 SK(주선경)

*선경은 연중 상시로 인재를 모집합니다.

■선경채용상담실 (02)728-4022, 0212 서울특별시 용인로2가 36-1 선경빌딩 1층 ■Internet 채용 Homepage http://www.sk.co.kr



동약로



긴급 작전

지난 18일 경주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총학 부재자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학생과에 보관한 뒤, 원효관을 지날때 쯤.

시계탑의 시계은 이미 오후 9시를 지나 15분을 가리키고 있다.

1시간 후 총대의원회 사무실.

예정대로 열린 중선위 회의에는 22명의 선관위 위원중 참관인을 포함해 7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총학 선거를 치르기 위해 투표함과 기표대를 비롯해 각 건물별로 배치될 중선위 위원들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모자라 몇 심본체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한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고, 참석 안한 선관위 위원들의 묘연한 행방을 찾느라 전화기와 핸드폰을 잡은 손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연락이 닿아 통화가 된 한 위원은 "내일 면접이 있어서..."라는 말을 전하며, 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것을 비춘다.

이내 회의장에서는 "그렇다면 도대체 장학금은 왜 받으며, 학생간부가 왜 필요하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불참한 위원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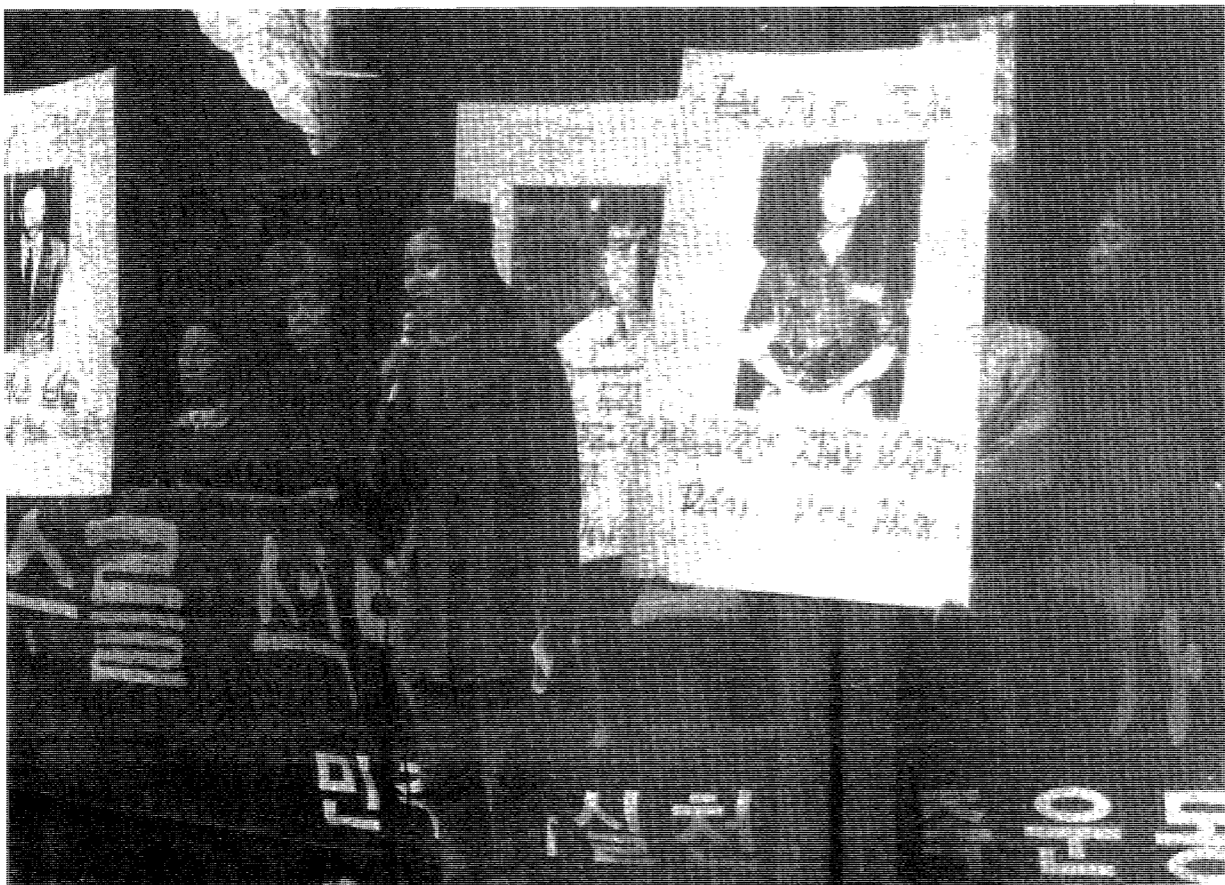
이래 저래 연락을 겨우 마치고 12시 경에 확보된 인원은 11명.

인원확보가 끝난 뒤 속행된 회의에서는 부족한 투표함을 가지고 결국 건물별로 하나씩 사용하기로 해 다음날 치러질 총학선거에서 단대별 선거 결과를 정확히 분석하기가 어려워진다.

"주전부터 학생과에 요청한 투표함이 선거전날까지 마련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며 선관위 위원장은 학교측의 무성함을 질타한다.

투표함에 마지막 선관위 도장이 찍힌 것은 새벽 2시... 18시간 후 개표된 제 15대 총학선거 선거 결과는 지난해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당선자 확정했지만 선거를 준비하면서 보인 선관위 위원들의 자질 문제는 다음해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이혜경 기자

구속문인을 위한 목요집회



박노해씨의 부인 김진주씨가 편지 낭송에 앞서 구속문인들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보장하고 구속문인 석방하라”

문인에게는 창작의 권리가 있다... 순수 동기 작가활동 탄압 안될말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상임의장=임기란 이하 민가협)는 지난 20일 탑골공원 앞에서 '구속문인을 위한 목요집회'를 개최했다.

현재 구속중인 문인들의 석방을 위해 마련된 이번집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구속작가인 황석영(소설가·93년 구속), 박노해(시인·91년 구속), 박영희(시인·92년 구속), 김하기(소설가·96년 구속), 진관순(시인·96년 구속) 등의 가족들과 민가협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송록회 민가협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현재 5명은 모두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는 바, 황석영, 박영희, 김하기씨는 불법 북한 방문, 박노해씨는 이적단체(남한 사회주의 노동자연맹)가입, 진관순씨는 북한과의 전화통화, 팩스교환 등이 구체적인 구속사유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창작을 위한 방북이었거나 남북한의 민간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당국의 법이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다르게 적용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집회는 민가협 민가협 상임의장의 여는말 △현기영(민족문학 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씨의 '구속중인 문인들을 석방하라' 연설 △김남일(소설가)씨의 '국제편'에서 보내는 구속문인

석방 촉구 메시지 낭송 △편지낭송-김진주(박노해씨 부인)씨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김하기씨가 부인 임정렬씨에게 보내는 편지 △이원규(시인, 시사주간 WIN 기자)씨의 시낭송-집회를 맞아 육중문인들의 석방을 열렬히 촉구하며 쓴 자작시 '돌아보면 그가 있다' △민족문학 작가회의 고문 이기영(시인)씨의 발언 등의 순서로 치러졌다.

임기란 민가협 상임의장은 여는말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의 생각을 쓰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자유로운 자기표현을 막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정부당국을 비판했다.

이어서 현기영씨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력있는 작가들을 가두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인재를 화석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학의 소재로 더 이상 '민족'이라는 단어가 허용되지 않는 이 사회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역설했다.

세계의 각나라에서 활동중인 시인, 소설가 등의 작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국제편' 또한 자유롭게 집필활동을 해야 할 작가들을 구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김하기씨의 편지낭송을

낭송한 부인 임정렬씨는 다소 울먹이는 목소리로 "국가보안법과 분단이라는 사슬에 묶여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자신의 감회를 피력했다.

이번 집회에서 마지막으로 발언을 한 이기영씨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그의 바람을 표했고, 권오현 민가협 공동의장은 "김영삼 정권 출범이후에도 수많은 양심수들이 투옥된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집회는 오는 12월 23일로 예정된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 앞서 마련된 것으로 구속문인에 이어 앞으로 여성, 인권운동가, 장기수 등 분야별로 계속 진행된다.

열마전 김대중 후보의 발언으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킨 양심수 논쟁. 그 논쟁은 이제 민가협에서 구속자들의 특징을 분류해서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다시 보라색 수건을 머리에 묶고 탑골공원에 선 민가협 어머니들의 눈물이 마르기 전에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양심수들이 빨리 석방되기를 기대해 본다. 유철주 기자

기고 - 포르노 그라피의 정치적 읽기

정치적 공헌 뒤에 여성 비하와 학대가 있었다

얼마전 우리는 '빨간 마후라'라는 포르노그라피 비디오가 한창 떠들썩하게 사회를 뒤흔든 것을 경험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던 당시에도, 또 지금의 사회문제를 들먹일 때도 굳이 '빨간 마후라'만이 아니라 제반의 포르노그라피에 언제나 따라붙는 꼬리표는 아마도 '도덕성의 부재'와 '성적 타락'일 것이다. 그러나 포르노가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은폐되어 왔다.

포르노그라피라는 말은 '색스에 관하여 말하기', '관능적인 것에 대한 묘사', '성적행위에 관한 묘사' 혹은 이 외의 왼쪽한 표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여자를 저열한 매춘부로 묘사한다. 이러한 평가는 포르노그라피를 매체를 통하여 널리 확산되어 여성의 성욕은 그 자체로서 자동적으로 저열하고 음란한 것으로 지각되는 현상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르노그라피가 '관능적인 것에 대한 묘사'로 여겨지는 것은 여성의 비속화만이 진정한 성의 쾌락으로서 시인된다는 의미이다.

포르노그라피에서의 여성학대와 비하는 18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포르노 작가인 사드 후자의 생애와 그의 전반적인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살인에 이르는 구타와 비정상적인 성교, 심지어 독극물까지 먹여 고문을 하고 그 속에서 쾌락을 즐겼다. 하지만 이러한 성도착적 성적학대를 사드 후자의 경우에만 국한시킬 수는 없다. 당시 프랑스의 귀족들은 너무 일찍부터 성적접촉을 갖고 성적성숙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성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조로한 귀족들은 발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 게다가 웬만한 자극에는 성적만족을 얻을 수 없던 상황에서 그들은 이러한 가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쾌락을 느낄수 있었던 것이다.

사드는 프랑스혁명 중 바스티유 감옥에서 투옥 중에 '규방 속의 철학'을 집필하였다. 그는 여기서 귀족계급과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왕실, 특히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의 도덕적 타락과 성적 비행을 비판하였다. 프랑스 혁명가들이 근절시키기를 원했던 대상은 귀족들의 도덕적 타락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근절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다름아닌 귀족 자유사상가들이었다. 주도적인 혁명가들 중에서 최소한 마리보와 생쥬스트는 혁명 이전에 이미 포르노를 직접 그린 일이 있고, 귀족 출신인 사드로 대표되는 주도적인 포르노 작가들 중에서도 여러명이 혁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정치적 포르노그라피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나긴 계보를 지니고 있었고, 프랑스의 앙시앵 레짐의 마지막 몇십년간 최고조에 도달하였다.

왕비에 대한 포르노그라피는 사회, 정치 속에서 민주적 효과, 혹은 평등의 효과를 가졌었다. 그것은 왕비의 육체가 왕권에 접근하는 일종의 수단이였으며, 그녀의 육체는 권력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789년 이후에 나온 광물들은 모든 사람은 왕비와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더욱 커졌다. 그러므로 그녀의 성적 행위에 대한 포르노그라피는 왕권을 비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평민을 격상시키는 효과까지 있었다. 이와 같은 평등의 효과는 그 대상이 왕비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귀족, 성직자, 수녀 등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사드의 정치적 포르노그라피가 프랑스혁명에서 이와 같은 긍정적인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에는 여전히 여성 학대와 비하의 사상이 전제되어 있었다. 이는 여전히 왕비에 대한 포르노그라피를 통해 확산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막는다는 또다른 정치적 효과(?)를 획득하였다. 혁명 일파들은 새로운 공화국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명확한 성별경계의 유지에 대한 잠재적인 불안감을 왕비에 대한 포르노그라피 광물들에 반영하였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새로운 공화국 내에서 성장할 여성의 지위를 막은 것이다.

이와 같이 포르노그라피는 단순히 상업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사회적 여론을 조정하여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됐다. 하지만 이러한 포르노그라피가 프랑스혁명에 국한시켜 보았을 때 자유와 평등을 얻어내는 데에는 빛나는 공을 세웠는지는 몰라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 본다면 여성의 비하와 학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현경 사대대 정치외교학과

PAGODA advertisement for English learning. Features '미국인 영어회화', '영 어', 'NEW 최신 프로그램', '일본어', '전문 프로그램', '미국 WISCONSIN 대학반', '중국어 · 스페인어 · 러시아어'. Includes contact info: http://www.pagodaac.com, 276-0509.

YBM 시사영어사 어학 학원 advertisement. Features '외국어 교육 1번지!', '매월 1일 개강', '수시 등록 · 수강', '영어 · 일어 · 중국어', 'TOEIC 종합', 'TOEIC L.C.', 'TOEIC R.C.', 'TOEIC 단계별 공략', '이카데미 TOEFL', '신경향 TOEFL', 'TOEFL L.C.', '영어 수해', 'TIME', '기초 L.C.', 'AFKN 청취', 'VOCABULARY', '영 작 문', '영어실력기초', '편입영어/발음특강', 'Communicate 회화', 'Interchange 회화', 'Side By Side 회화', 'GMAT/GRE', '일본어 문법·독해', '일본어 일어회화', '중국어 문법·회화', '주말 특별 과정'. Includes contact info: 276-0509.

성문외국어학원 advertisement. Features '언어로! 세계로!', '12월 1일 개강', '세계화! 말이 술술 통합니다.', '많은 외국어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원이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문은 기회를 넓혀드립니다. 그러나 낯은 법은 가르쳐 드립니다.', '영어회화: EFL코스, SIDE BY SIDE, INTERCHANGE, FREE TALK, TOEIC종합, TOEIC L/C·R/C, SCREEN LINE LISTENING, 기초LISTENING, TOEFL, 기초VOCABULARY, AMERICAN HEARING, AFKN, 영작문, 영어수해, GPE, 영문법, 대학입시영어, 일어초급, 일어특급, 일어능력시험, NHK정석, 일어능력시험, 일본인회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주일특별과정', '매월 TOEIC, TOEFL 모의TEST 실시', '대표전화 : 276-0509', '738-5151 (11) 종로2가 청문서점'.

막내린 '98 선거

제30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 당선자 인터뷰

“유권자들에게 감사하고 실추된 학생회를 되살리겠다”

50.2%의 투표율을 보인 제30대 학생회장선거에서 구준서(전자공4)·이미성(국교3)조가 54.6%의 지지율을 얻어 지난 21일 당선됐다. 98학년도 동학을 이끌어갈 그들의 당선소감과 포부를 들어보고, 이번 선거를 평가해 본다.



제30대 총학생회장·부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구준서(전자공4)교과 이미성(국교3)양.

지난 21일 선거개표 직후, 제30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구준서(전자공4)·이미성(국교3)조를 만나 당선소감을 들어 보았다.

- 당선소감은

=우선 많이 힘든 선거였다. 이번 선거에서 다른 후보 측과 대립양상이 한층더 사수나 탈퇴나 하는 공방으로 나타나 신경을 많이 쓴 점도 있고,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결과가 좋아 매우 기쁘다. 또 한층더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고 지지해준 유권자들에게

잘 응화시켜 학생들의 신뢰를 다시 찾고, 대학의 공동체 문화 찾기에 힘 쓸 것이다.

- 투표 마지막날인 20일, 원학생 8시간까지로 정해진 투표시간을 밤11시까지 연장하면서 선거가 치러졌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차기 학생회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올바르게 세우는 것도 선관위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학생회가 전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총학생회까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안된다는 위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 학우들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 한층더 탈퇴를 표방했던 을 후보자들의 지지율도 개 표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어떻게 응화시켜 나가겠는가.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령 한층더에 대한 인식부분도 학생들이 왜곡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알려나가는 것이 학생회의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 98년도 중점사업방향은.

=많이 실추된 학생회 체계를 복원·강화해 학내에 산재된 여러문제에 대해 학생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

- 선거기간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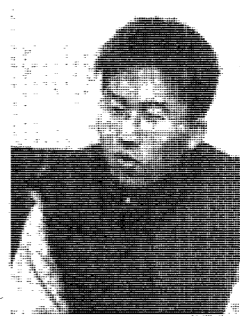
=처음엔 학생운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학생들도 직접 만나 얘기한 결과, 비판적인 시각만 가졌던 학생들이 얘기후에는 긍정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내년 학생회 사업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게 하는 계기였고, 또한 도서관에서 만났던 학생들이 기대이상으로 많은 관심과 예정을 보여 참 고마웠다. 그리고 '청년 학생 실천단'의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

=선거기간, 학생회에 불만이 많아 투표를 안하거나 속스리워 투표를 안하는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웠다. 내년 학생회 사업을 잘 꾸려가 학생들이 스스로 권리를 찾는 주인의식을 갖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최정식 기자

박병제 선관위원장이 말하는 '98 총학생회장 선거



박병제(철4)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장을 만나 지난 21일 마친 '98 총학생회장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 이번 선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들어보았다.

- '98 총학생회 선거를 평가한다면.

= 후보자들을 비롯해 선거 운동본부, 선관위 등 분체가 많았던 선거였다. 경선으로 치러지다 보니 양측이 이익제기를 상당히 많이 했고, 이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 선관위의 분명한 자세가 다소 부족해 많이 많았다.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다. 학생회의 위상이 곤두박질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98학년도 학생회를 건설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운본)에서 어떤 이익제기를 했으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 하나는 선거운동을 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행동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어 때 어떠한 점은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식의 질문 등이었다. 예를 들자면, 19일 공과대 투표 도중 투표함에 찍힌 검은 도장의 색깔이 타 단과대와 달라 후보자측에서 투표종단을 요구해 1시간 40분가량 투표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다.

예년에는 후보진영에서 이익을 제기하거나 요구하면 선관위가 통보하는 식이었지만, 이번 선거에는 양후보측이 합의해서 이를 선관위가 받아들이는 식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했다. 이 점이 예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겠다.

- 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아침 투표 시간을 11시까지 연장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예술대와 공과대 투표에서 문제가 있어 투표시간상의 손해가 있었다. 아침 투표 때 투표율이 저조하자 양후보측에서 "손해 본 시간만큼 연장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선관위 논의 끝에 이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 투표가 끝난 후 처음 발표된 투표율은 50%를 넘지 못했다가 다음날인 21일에는 50%를 넘는 것으로 정정 발표됐다. 어떻게 된 것인가.

= 유권자 인명부를 확인·계산하는 과정에서 분과대의 유권자수가 1천5백59명인데 1천6백59명으로 잘못 기재돼 결국 총유권자수가 1백명 많게 계산된 것이다. 또한 사범대 투표인원 계산에 있어서도 10명을 추가계산하는 오차가 있었다. 이같은 사항은 21일 개표전 최종 확인시 드러난 것으로 선관위의 가장 큰 실수이자 잘못임을 인정한다.

- 선거인명부에서 휴학생을 확인해 그 인원을 제외시켰는데, 그 경로의 모든 것을 처리하고 최종 확인된 투표율은 어떻게 되는가.

= 처음에 투표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 양후보측에서 휴학생을 확인해 전체유권자수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분과대 유권자수, 사범대 투표인원 오차, 휴학생명부 22명 확인 등의 모든 문제를 처리한 후 확인·결정된 투표율은 전체유권자 1만8백11명에 투표인원 5천4백29명으로 50.2%이다.

- 투표가 끝나고 개표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발표내용이 바뀌는 등 순탄치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선관위의 치명적인 실수로 선운본은 물론 학우들에게 불신을 주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크게 비판 받아야 될 부분임을 스스로 인정하며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할 것이다.

김홍환 기자

'98 총학생회장 선거를 마치고

과정은 접어두더라도 '일단 뽐고보자'

후보자·선관위·유권자 모두의 잘못... 참여·관심으로 학생회 살려야

"저... 혹시 투표하셨어요? 지금 투표율이 부족하거든요..." '98학년도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10시가 넘어선 동국관 앞. 선거운동원들이 귀가하는 학생들의 길을 막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모습. 선거운동원들에게 팔이 붙잡혀 투표소로 끌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연출된다. 올해 역시 예년처럼 '투표 막바지 혼란'이라는 태풍이 동학을 휩쓸고 지나갔다. 달라진 것이 없다. 아니, 이제는 '선거는 원래 이런거야' 하는 관성마저 깊이 뿌리를 내리버렸다.

'98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구준서(전자공4)·이미성(국교3) 조가 당선, 총학 선거가 지난 21일 막을 내렸다. 학생회의 위상이 곤두박질해 버린 이 시점에서 제 30대 총학생회가 건설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인주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던게 사실. 학생회의 장기적인 인력을 감안한다면 이를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또다른 과제인 것이다.

제 30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구준서(전자공4)·이미성(국교3)조와 허창수(정의3)·김중환(건공3)조가 입후보해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지난 11월 7일 1차우세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고, 총 3회에 걸친 유세와 15일 열린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차우세가 끝난 후부터는 구체적인 정책대결의 장이 되기 보다는 한층더에 대

한 입장차이가 그들의 모든 정책인양 분위기가 흘러갔고, 유세장이나 공청회장은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썰렁했다.

선거운동본부의 유권자 모셔오기는 이번에도 그 모습을 드러냈다. 18일부터 3일간 치러진 투표에선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야간강좌의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 등 혼란스런 모습이었다.

'98 총학생회 선거를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 유권자 모두의 잘못으로 얼룩진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후보자들의 정책대결에 큰 문제가 있었다. 구체적인 정책대결이 보다는 한층더 '사수'나 '탈퇴' 나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권자들은 지지후보자의 선택에 있어 다른 정책사항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선거운동본부 역시 선관위에게 지나친 이익제거나 요구를 해 선거과정상에서 투표가 중단 되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고, 결국 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야간강좌의 투표를 11시까지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이익제기를 받았을 때 양후보측의 합의를 문제를 해결하는 등 분명한 자세를 보이지 못했고, 가장 결정적으로 투표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실수로 인해 학생들에게 혼란과 불신감을 안겨주었다. 선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선관위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이다.

못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선거에서 나타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일반학생들의 참여 저조를 꼽을 수 있다. 선거운동원의 이끌림에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들쭉날쭉한 학생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학생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에서 학생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었다. 선거는 대학사회라는 울타리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에 가까운 학생들이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 지금까지의 학생회가 맘에 안 든다면 선거를 통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탄탄한 학생회는 다른 이념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으로 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임을, 자신들의 한 표 한 표가 학생회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현 학생회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각인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동아의 한 해를 이끌어 갈 총학생회장 선거. 학생회 재생이라는 커다란 짐을 짊어진 제 30대 총학이 이러한 제반문제를 하나 하나 풀어가며 튼튼한 학생회를 건설할 길 기대해 본다.

김홍환 기자

正道경영·초우량LG

다시 받은 학생증

졸업후 2,3년 월급쟁이로 살다보면, 자기개발은 고사하고 학창시절 꿈과 개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가슴에 남는 건 회의뿐이죠.

하지만 LG에서는 다릅니다.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이고, 전문 경영자를 키우는 HPL 과정과 글로벌 MBA 과정, 해외 석·박사 과정 등 수준 높은 인재육성 제도를 통해 당신을 큰 인재로 만들어 드립니다. 또한 국내 기업 최초로 실시하는 사내 벤처(Venture)제도를 통해 사업가의 꿈도 실현시켜 드립니다.

어때요? LG라는 대학원에서 월급까지 특특히 받으며 하고싶은 공부와 자기개발을 마음껏 하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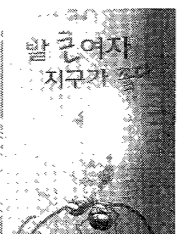
LG/인재개발위원회 http://www.lg.co.kr



책소개

발 큰 여자 지구가 좁다

'나도 배낭여행을 떠나보고 싶다'
생각은 있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용기를 얻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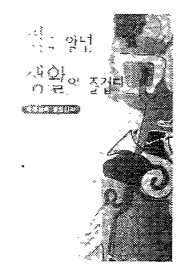


한 당찬 여대생이 혼자서 65일간 배낭 여행을 다녀온 체험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개되었다. 많은 에피소드를 북돋워 주는 문체로 재치있게 표현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폭소를 자아내게 한다. 필자가 직접 몸으로 겪고 터득한 정보와 비법(?)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출판사-평민사, 정가-7천 5백원

사람을 알면 생활이 즐겁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 관계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고로 사회 생활 속에서 생기는 인간관계의 심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최광선 교수가 쓴 이 책에서는 사회심리에 대해 쉬운 개념 풀이와 예화, 일반적으로 많이 부딪치는 내용을 통해 누구나라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맺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자기 발전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출판사-사계절, 정가-7천원

경제학의 향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경제 성장은 허구이다"라는 주장을 해 우리에게 지적 충격을 안겨줬던 폴 크루그먼의 저서이다.



현대의 경제학 이론이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현실 경제 및 정치권력과 상호작용하는 최근 20년간의 과정을 규명, 경제학의 새로운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종래의 경제학 이론서와는 다르게 실제 사례를 들어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서고 있다.

우리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과 경제정책을 짚어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출판사-북키, 정가-9천원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서늘한 출근을 한다. 학교 도셔도 구입해야 하고 점심때는 주말 산행을 예정한 지도 학생들과 계획을 점검하고 각자 료를 합당하여야 한다. 바쁜 마음에 막 정각인 앞을 오를 즈음, 어디서 험한 욕설이 들려왔다. 필경 대학 캠퍼스가 아닌 시장 난전에서나 들을직한 말들이었다. 눈이 움푹 파이고 주름이 가득한 청소년과 졸업반쯤 되어 보이는 한 남학생의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둘 사이에 낀 수건을 머리에 두른 또 다른 청소년이 끼어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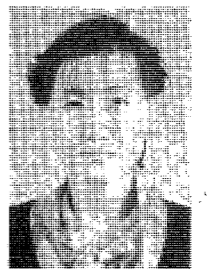
옆에 던지자, 그걸 본 노인이 질책을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그 남학생은 버릇 없는 행동으로 말대꾸를 하고, 이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다시 그걸 말리려고 한 아주머니와 노인의 싸움으로 비화된 것이다. 아주머니 말인즉슨, "그만해요! 그만하고 대학생들이 우리 같은 사람 말이나 들겠어요?" 라고 하자, 그 말에 노인은 더 부화를 돋구워 "그것도 못 알아 먹는 놈들이 대학생이면 뭐 해!"라고 맞받아면서 싸움은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다.

사투어 놓았던 함이 불계단을 밟고 소리가 퍼져 내려오는 성스러운 정각엔 주변이 상스러운 욕설로 뒤덮이면서 뒤편을 맞고 있다.

욕은 일상의 언어 질서와 행동 규범이 아무 짝에도 소용없을 때 쓰는 언어진리이다. 거기엔 이른바, 갈 데까지 갈 과격의 위기가 사투 등등하다. 그래서 욕은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인지 개념을 영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언어 회로의 수순을 밟아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으로 폭발되는 것이다. 부정하고 싶고 고개를 내젓고 싶어도 일상의 행동규범이 폭발되어 파편 조각으로 날아오는 그 욕설이 과연 왜 터져 나와야 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이나 논리가 발붙을 데 없는 욕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수적인 노인의 저항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욕하고 욕을 들으면서도 욕을 피해 왔다. 심지어 구박하고 억압해 왔다.

욕을 맞대면하면서 우리 내면과 스스로 없이 만나지 못한다면 논리와 이성애 매인 언어로는 더욱더 자신을 만나지 못할 지도 모른다. 옛날 희랍에 'Orgy'라는 말이 있다. 관공과 진공을 뚫고 새로운 질서와 세상에 눈뜨기 위해 난장판을 벌인 것을 일컬음이다. 진정 욕을 마땅한 자에게 욕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 보자. 이 노인의 욕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난장을 쳐 봄직도 하지 않을지...



김혜숙 사범대 국어교육과 교수

극단 '마녀'를 다녀와서

'재능있는 여성의 기 쫓겨 할 터'

여성문화혁명 이루려는 마녀의 꿈



극단 마녀

'남자마녀 환영'
극단 '마녀'의 집 문에 적혀 있는 글이다. 페미니즘이 여성만의 운동이 아닌 사회 전체의 운동임을 주장하는 그들의 가장 간결한 표현이다.

극단 마녀는 자기 다른 삶을 살고 있던 5명의 마녀들이 여성문화 운동을 필요성을 공감해 11월 창단했다.

"역사적으로 재능있는 여성들은 기존의 질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탄압받아왔습니다. '마녀사냥'은 그 탄압의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녀'는 97년 끼이고 재능

있는 여성들의 기를 쫓겨하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장경선 사무국장은 마녀가 된 이유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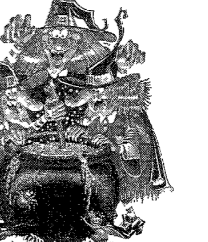
많은 옷가게, 술집, 카페 등 상업성 물결로 가득차 있는 신선, 여러 대학들이 인접해 있음에도 젊은이들이 누릴 문화공간은 그리 많지 않다. 대학의 창조적인 공연 문화가 부재한 상황에서 마녀의 결정은 만큼 저변확대가 된 것도 아니어서 극단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 마녀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전화와 방문이다. 그리고 극단에서 밤12시를 넘겨도 험사리 웃으며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어 그녀들은 오늘도 열심히(?) 마녀가 될 수 있다.

비하고 있는 마녀에게 이제 관객만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마녀라고 항상 행복한 것은 아니다. 마녀를 괴롭히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들'이 그것이다. 여성 운동에 관한 인식이 그나마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크게 지원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극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저변확대가 된 것도 아니어서 극단을 운영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런 마녀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은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전화와 방문이다. 그리고 극단에서 밤12시를 넘겨도 험사리 웃으며 반겨주는 가족들이 있어 그녀들은 오늘도 열심히(?) 마녀가 될 수 있다.



극단 마녀에서는 오는 25일부터는 '97 자기만의 밤'을 공연한다. 밤은진짜가 주인공으로 발탁된 모노드라마 형식의 이 연극은 5년전 공연했던 작품으로 당시 만원시세를 이뤘던 6만 관객이 관람했으며, 그 결과 페미니스트들의 성과물로 기억돼 왔다.

97년 현재 페미니즘의 사회반영은 연극 내용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여성들의 성적 억압을 인식시키는 주인공에서 현대 사회 여성으로 각색되어 현대여성상을 그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화 학교나 연구소 등을 만들어 작으나마 문화 혁명을 이루고 싶다"는 마녀의 꿈을 머지 않은 미래에 확인할 수 있을 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불교 문학사연구회에서 장영우 교수가 발표한 '미륵신앙과 현대소설'을 발췌해 실는다.

소설 '장길산'에 나타난 미륵신앙을 중심으로

'절대평등세상 희구' 미륵신앙, 민중혁명사상과 결합

미륵신앙은 상생신앙과 하생신앙으로 구분되는데, 전자가 상류계층의 타락 신앙이라면 후자는 서민(민중) 계층의 자력 신앙이라 할 수 있다. 또 미륵신앙은 현재의 율법세계를 강력히 회구한다는 점에서 사후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미타신앙과 변별되기도 한다. 이런 미륵(하생)신앙은 독남, 치병, 기복 등의 민속신앙과 습합하는 한편 계급사회의 전복을 꾀하는 민중혁명사상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황석영은 '장길산'에서 미륵신앙과 민중혁명사상을 결합시킨다. 이 두 사상의 결합은 우리역사에서 그리 낯선 경험 이 아닌데, 이를테면 삼국시대 이후 미

륵신앙은 민중의 자각과 노력에 의해 지 상정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력신앙으로 인식되었으며 민중의 자각과 노력이란 두 말 할 것 없이 현체제의 부정과 전복의 의미로 이해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의 주인공(장길산)은 자신의 최종적인 목적이 새로운 국가 건설, 즉 인민국에 있으며 정진인과 같은 특별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장길산 등이 꿈꾸는 이상정도가 일체의 신분적 차이가 없는 절대 평등의 이상향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장길산, 운부, 풍영, 여환 등 소설의 주요 인물들이 주장하는 미륵은 백성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어 대단히

친숙한 존재, 즉 백성이 곧 미륵이요 미륵이 곧 백성이라는 사상이다. 따라서 그것은 일부 귀족 계층에 의해 지배되어 온 기존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를없는 백성들에 의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민중주의적 역사관의 표명과 다를 바 없는 것이기도 하다.

장길산과 운부 등의 혁명 의도는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하지만 작가는 그것을 혁명의 실패로 인정하려하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세상의 소문에는 장길산이 암록강변의 벼동 수백리의 골짜기 안에 갇혀 숨었다고도 하고 또는 두만강의 하루 서수리의 광활한 숲과 호수 사이에 대부대를 이루어 살고 있다하

였지만 아무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활빈도의 것발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소설 결말 부분은 역사 해석의 오류가 아니라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는 편이 옳다.

황석영은 역사 속에 숨어 있던 장길산이란 도적을 발굴하여 그에게 미륵사상을 주입시켰다. 역사의 기록에서 운부, 여환 등 미륵신도들이 거사를 일으킨 것은 숙종 14년(1688)이고 장길산 부대가 승려와 연대한 시기는 숙종 23년(1697)이지만 황석영은 이 두 사건을 일관된 흐름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민중의 강력한 저항 의지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

카트리지 하나로 2400장이나 프린트 되니까 유지비용 적지, 또 가격도 정말 만만하지 ~ 학생이니까, 난 실속있게 좋아!

우리는

CC

Canon Couple

프린터는 기본이고 스캐너까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사진도 이미지메이터도 내 맘대로 표현한다! 생각도 행동도 젊은 나이에겐 창의력 있는 게 딱이거든!

카트리지 하나로 2400장까지 프린트한다!

실속파를 위한 컬러 프린터 **BJC-210SP**

- 초절약모드 사용시 카트리지 하나로 2400장까지 프린트
- 인크량이 20% 늘어난 BC-03 카트리지 사용
- T 셔츠 판박이용 전사지도 프린트
- 흑백 프린트시 720x360dpi의 고해상도
- 최저수준의 가격에 가능한 강화되고 크기는 초소형

프린터에 스캐너 기능까지 갖췄다!

창작파를 위한 컬러 프린터 **BJC-4300**

- 스캐너 카트리지(옵션)만 갈아끼우면 프린터가 스캐너로
- 명암까지 생생하게 출력하는 인크방울 변조기술
- 더 진보된 포토 리얼리즘으로 출력물이 바로 사진
- 확대할때 이미지의 깨진 부분을 자동교정하는 이미지 오퍼타이저
- 특별한 날을 위한 특별한 출력 - 배너 프린트

● 고객상담실: 일반전화 (02)562-9133
수신자 요금부담 080-987-8585

● 온라인·하이텔 PC통신 서비스: GOLCBJ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icanon.co.kr

● 자동 FAX전송서비스: (02)563-7161

구입문의처

울산 02)3272-1992	인천 032)438-1992	부산 051)462-0003	포항 0562)81-1992	광주 062)572-6121
강남 02)3450-0713	경인 032)625-4702	경남 0551)89-1992	안동 0571)52-5363	전주 0652)224-2365
강북 02)3273-8497	수원 0331)251-1992	대구 053)763-0071	대전 042)255-1729	춘천 0361)261-8432
서울 02)3450-0766~7	안양 0343)568-9224	울산 0522)68-1990	청주 0431)65-3030	강릉 0391)652-4321

※LG IBM PC를 롯데캐논 매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LOTTE Canon

롯데캐논

한국언론운동 아디움 왔나

1. 총론
2. 한국언론 얼마나 자유로운가?
3. 민주언론의 발달과 전개
4. 현대 언론운동의 전개와 대안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된다” 6·29선언으로 신문의 발행에 관한 규제 철폐

경제적 어려움 · 정부의 무제한 간섭 속 공정 · 자정보도 노력 한계 달해

한국언론의 역사는, 비록 많은 굴곡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민주언론을 향한 투쟁의 역사였다. 일제시대 이래 문민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자유는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억압은 언론사 내외의 이종구조로 되어 있다. 밖으로부터의 억압은 권력에 의한 것으로, 권력이 그 권력을 획득, 유지, 행사하기 위해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 것인 반면 안으로부터의 억압은 언론이 경영과 편집의 두 축으로 구성되었음에서 비롯된다.

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언론은 대부분 민간기업으로서 공익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어 있다. 경영과 편집은 바로 그 상업성과 공익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 둘은 때때로 충돌하며 권력과의

관계에 따라 기업적 흥망과 성쇠를 거듭해온 바 언론의 민주화 운동도 권력(정부), 경영(사주), 편집(기자) 사이의 갈등과 협력관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60년대 이전엔 주로 경영주와 편집사이의 갈등보다 권력과의 갈등이 주를 이뤘다. 당시엔 경영주가 언론을 별로 상업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자들 자신도 지사적 사고에 젖어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께 힘을 합쳐 권력에 맞서 싸웠다.

그러나 5·16혁명으로 들어선 군사정권이 언론에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면서 경영과 편집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계기는 1964년의 언론윤리위원회 회법 파동이었다. 비판적 언론활동에 근본

적인 쐐기를 박기 위해 마련된 이 법률은 언론계 상하의 일치된 힘에 의해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이 사건의 마무리 단계에서 사주들이 청와대를 방문, 사의를 표명하려 해 투쟁의 의미가 퇴색되고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말았다.

이후 홀로 고립된 기자들의 수난이 이어지면서 언론은 점점 무력해지고 급기야 삼선개헌이라는 정권의 횡포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만다. 이는 대학가의 격렬한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대학생들의 항의 방문과 성토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언론은 74년 마침내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일어났다. 바로 자유언론 실천운동이다. 처음 동아일보 기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 운동은 곧 전 언

론계에 요원의 불길처럼 번졌으나 박정권의 교묘한 광고탄압 작전으로 또다시 경영진과 기자들이 분열, 기자들의 대량 해직사태로 비극적 종말을 맞고 말았다. 이때 쫓겨간 동아, 조선일보 기자들은 각각 투쟁위를 구성, 기존 언론을 제도언론이라 부르며 언론사 밖에서 새로운 차원의 언론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제도언론은 79년 박정권이 암살될 때까지 절망과 모멸의 세월을 보내다가 이른바 80년의 봄을 맞아 비로소 언론자유를 향한 희망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들은 기자회견을 중심으로 단결, 신군부의 보도지침과 사전검열에 항의, 일제히 제작거부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군부는 30여명의 기자를 연행 그 기세를 꺾은 다음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광주항쟁을 무지비하게 진압하고, 그해 여름엔 언론 정화라는 이름으로 7백여명에 달하는 기자를 해직시켜버렸다. 이로써 언론민주화의 꿈은 꺾이고 혹독한 겨울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해 봄은 너무 짧았던 것이다.

죽었으나 민중의 힘은 끝내 다시 끓어올라 87년의 시민항쟁으로 피어났다. 노태우는 6·29항복선언을 통해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된다”고 선언, 언론사에 상주하던 기관원을 철수시키고 신문의 발행에 관한 규제를 철폐했다. 기자들은 이때를 기회로 삼아 다시는 언론이 내외의 힘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각 회사마다 잇달아 노조를 결성, 언론운동을 조직화하고 편집권 독립을 추구하는 한편 공정보도와 자정운동을 거세게 펼쳐나갔다.

그러나 90년 3당야합으로 정권의 힘이 다시 강해지자 노조는 다시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특히 무한경쟁에 휩쓸린 신문의 경영층의 생존논리까지 가세, 노조가 아예 존재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여전, 노조를 통한 언론 민주화 운동은 이제 거의 한계에 도달한 실정이다.

김지완
정보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욕들이 마땅한 세상, ‘욕’을 욱먹인다

검정빛 유머의 시대 : ‘욕’의 미학

자기반성에서 사회질책까지 가려운 곳 긁어주는 효자손

욕이 천대받아 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이상한 사실이다. 누구나 쓰는 말, 누구나 듣는 말, 그게 욱이다. 한 데도 구박해 오다니?

구박하고 천대하고 할 바에는 아예 쓰지도 듣지도 말았어야지, 실컷 울타로 쓰고 내뱉을 대로 내뱉어 놓고서도 욱을 해대다니 왓간 잘 때 마음 다르고 나설 때 마음 달랐단 말인가?

그리고 보니, 남들을 욱먹이는 욱은 스스로도 꽤나 욱을 들어 온 셈이다. 욱은 그만큼 신세가 기구했던 것이다.

하긴 욱이 욱들이 썩 대륙이 아주 없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다. 쌍소리, 야다귀, 아가리질, 악매(惡罵)라고도 일컬어 진 그런 범주의 욱은 남들에 대한 저주고 학대고 부당한 가해(加害)이기도 했다. 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따위 욱은 하는 사람 스스로 천체하고, 사람꼴 아니게 만들기 마련이라서 별로 반호반을 여지가 없을 성 싶다.

하지만 이같이 인간악덕에 늘 욱일지라도 전혀 쓸모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패악질이라고 손가락질 받긴 했어도 억눌린 자의 최후의 저항이요, 처절한 절규일 수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일 시적이거나 제 구실을 제대로 다하는 감정의 발산이었다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예사 말 아닌 욱을 쏟아 붓고 나면 가슴 후련해진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욱은 역시 말하는 것이 보다도 내뱉고 쓸고 해야 제격임을 놓치고 싶지 않다. 그것은 폭발하는 언어고 분화(噴火)하는 말이다. 불길이고 칼날이다. 아니면 똥오줌같은 것이다. 최소한 배설하는 쾌감은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욱의 다양한 언어적 면모 내지 그 쓰임새를 모른 척 할 수는 없다. 욱을 해서 내뱉어버릴 그런 범주로만 욱을 국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욕의 쓰임새는 실로 다양하다. 단일 종의 언어 가운데 욱만큼 사투 서로 다른 속성을 여러 가지로 내포한 보기가 달리 있을 것 같지 않다. 욱은 실로 요란하다.

우선 팔자한탄이나 신세타령에 쓰이는가 하면 그밖에 자기모멸, 자기비하에도 곧잘 쓰이는 것을 보면 욱이라고 해서 언제나 대인용이긴 한데 아남을 헐사리 해이하게 된다. 자기참뻛기기도 욱은 곧잘 쓰이곤 한다. “이이고, 못난 이년 신세라고 개같이 타고 나서...”는 그



전형적인 보기가.

욕은 감탄사로도 사용되거나 이 경우 대인용인지 자기용인지 가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가령, “제기랄!”, “ㅅ-ㅅ-ㅎ”이라고 할 때 그건 혼자속의 투덜뽀인가 하면 남들에게 대놓고 똥오줌 끼얹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 영화의 대화에서 “fuck you!” 빼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싶긴 하지만 그게 일일이 생육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역시 욱은 대인용일 경우가 많다. 남들을 향해서 터뜨려질 때, 욱은

욕다운 본색을 제대로 드러낸다.

우선 좀 똥뽀일지도 모르나 욱은 예사로 애칭으로 전용(轉用)된다. 모처럼 반갑게 만나 친한 사람끼리일수록 욱질로 인사주고 반근 하는 것은 바로 이 보기에 속한다. 호남사람들의 “이 잡것!”, 영남 여성들의 “아이고 이 문둥아!”, 서 울 지방의 “이 새끼!”들은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들은 차라리 호들갑이고 수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언제 사투 사나운 억압으로 돌변할지 아무도 미리 예측하지 못한다. 패악질과 애칭 사이를 욱은 예사로 넘나든

다. 반대와 반대, 역(逆)과 역 사이를 마치 이웃집 드나들 듯 하는 것, 그건 욱의 엄청난 특권이다. 부랄이 현 바지 가량이 드나들기도 이같이 자유롭기는 어렵다. 연해연신 물구를 넘어내는 게 욱이다.

물구를 넘다 보니, 욱은 놓이 된다. 놓지거리와 욱을 가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거니와 이는 말의 놀이, 말의 장난이 아니고는 욱이 제 감상으로 제 빛 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때로 어저지라고 할만큼 욱이 건강부회를 일삼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잡지 못 본척한 못된 상사에게 두 번

잡힌 어느 파동이 부하직원 위기에 몰렸다고 치자. “내가 귀신이던 말이나?”고 호통치는 심술궂은 상사에게 그가 “기왕이면 제사상을 차릴까요?” 했다. 먼 어떨까? 물론 이 때 당한 쪽에서야 웃을 웃기가 쉬운 일은 아닐테지만, 옆 사람은 그럴 수가 있을 것이다. 욱은 이 같이 이른바, ‘검정빛 유머’, 즉 가시술 견진 농이 될 때, 제법 사교적이 되고 박박하고 뼈대며 돌아가는 삶의 현장에다 넉넉하게 가뭇칠도 하게 된다. 물론 욱을 직접 듣는 사람 곧 욱감태기를 희생물로 삼고 있던 하지만 그걸 크게 나무랄 일은 아니다.

농욕은 사회적 유희유이다. 위에 든 잠자는 말투(“차라리 죽어버려라”가 숨겨진)의 우월법의 욱은 동료직원들의 배년 욱은 체증을 내렸을 게 뻔하다. 이같이 농욕은 스트레스해소에 극진히 이바지 한다.

감탄사의 욱, 애칭의 욱 그리고 농욕을 이렇듯 거느리고는 가장 득직한 구실을 다하는 욱종의 욱은 재적질 욱이다. 욱지기 나는 통통 같은 세상, 욱먹어서 산 욱가마리들이 구르기 꺾듯하는 사회를 견디다 못해서 쏘아내는 직적탄이고 채적질 욱이다. 그것은 인간 악덕과 사회악에 대한 강한 분노와 항의의 아우성이고 절규이다.

다만 욱 자체가 다소 악덕의 언어인 것을 고려한다면, 필경 채적욕은 이렇치 열이고 골목지계라고 해야 한다. 독으로 독을 다스리는 것과 같다. 사회정의며 인간 양심의 기동 타격대요, 응급조치라고 해야 한다. 이로서 욱은 덕담이라고 하고 약이라고도 하는 것이다. 욱은 말의 구급병이다.

이 덕담의 효과를 드높이기 위해서 욱은 익살이며 기지, 그리고 과장법, 비유법 등 그 특이한 각종 언어전락을 능통하게 활용한다. 이럴 때, 욱은 인간 언어 가운데 가장 민첩하고 날렵하고 활달한 언어란 것을 증명해 보인다.

욕들을 많이 많은 세태요, 세사일수록 욱은 그 기동성을 발휘하기 마련이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욱이 짙싸게 보다 더 자주 자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제대로 다들 바로 살아갈 수 있기 하기 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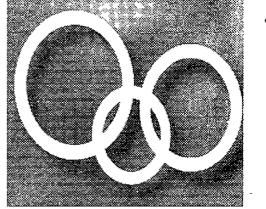
김열규
인제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짧은 소식

학교 안에서

동그라미 정기전

사진 예술 연구회 동그라미에서는 제28회 정기전을 마련한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에는 컬러 뿐만 아닌 흑백의 엄선된 작품도 선보인다. 오늘(24일)부터 28일까지 학관 2층 연회실에서, 27일부터 29일까지는 명동 유네스코 회관 10층에서.



학교 밖에서

애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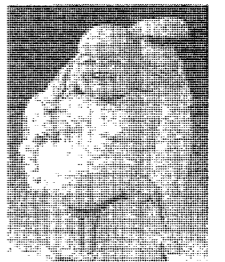
'97 MBC 마당놀이 애랑전에서는 배비장이 아난 애랑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녀의 눈으로 본 우리 인간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남성의 이중적 얼굴을 신랄하게 풍자한다. 고전극의 단순한 재현이 아니라 오늘의 사회에 칼을 대어 이면을 발견해 보자는 의도. 12월 7일까지 정동문화체육관에서. 문의 789-3671



전통조각회 회원전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조각회'가 창립 10주년 기념전을 연다.

70여명의 회원들이 부처살·보살상에서부터 불전함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신앙심과 예술성의 불교조각 1백여점을 선보인다. 25일까지 공평아트센터에서.



97 자기만의 방

오랜 역사 속에서 한국의 여인들이 겪어왔던 가부장적인 억압과 성적 차별, 그리고 불평등 속에서 자기만의 방을 얻으려는 여성들의 용기를 그린 작품. 본격 페미니즘 연극의 새 지평을 연 '자기만의 방'은 지난 92.3년에 걸쳐 약 8개월간 장기 공연을 한 바 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신보수주의적 가부장제 현상에서 재공명하게 된 이번 연극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쓰여졌다. 내일(25일)부터 12월 28일까지 극장 마너에서. 문의 324-6008

메아리

양반의 자존심

▲우리의 양반님들은 아무리 배가 주러도 책만을 읽었으며, 아무리 역수같은 소나기가 내리부어도 결코 뛰지 않을 정도로 행동이 조급하지 않고 느긋하게 행동을 했다. 아무리 돈이 없어 쌀을 사지 못해도 결코 나가서 돈을 벌러오는 일이 없었다. 이밖에 우리 양반들은 체면을 중요시 하는 인물들이었다. 체면보다도 현실의 문제 해결은 외면한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잘 될 수 있을거라는

막연한 미래와 오직 책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이야기들, 우리의 옛 사람들은 그러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에도 이런 양반들은 볼 수있다. 그 옛날 행세를 버리지 못하는 인물을 말이다. 대기업들의 부도사태에 따른 환율폭등과 주식 폭락등으로 우리의 경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자력으로 해결할 수있다고 했지만 또다시 기업들의 부도설이

난무하고 있는 시점이 되자 이제서야 IMF구제 금융을 받아들인다는 발표를 했다. ▲물론 이 금융지원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함께 요구된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계속 무너지고 있는 대기업들,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는 환율 등 많은 금융불안을 가지고 있다. 일부 경제인들은 구제금융이

경제 속박이라는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우선 눈 앞의 일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리의 탄탄한 경제 발전성을 확실히 믿는다면 별 문제 없다고 보는 낙관론자들도 있다.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최근 몇 년동안 큰폭 성장을 거듭해 왔다. 향후 10년이면 경제대국으로 급부상 할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능력을 믿고 더욱 노력을 한다면

구제금융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지금 IMF의 용자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다. 오랜 논의 끝에 구제 금융을 지원 받기로 했지만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진작에 받을 것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추어져 왔는지... 그 잘난 자존심 지키기는 것이 그리 중요했는가! 이태훈 취재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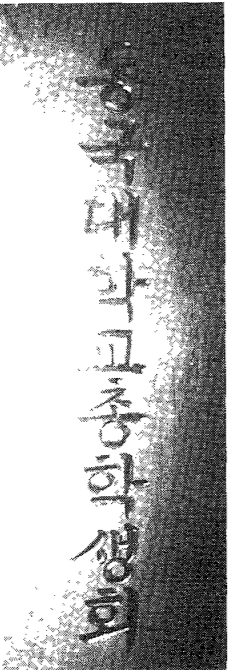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TEL:2603491·2/(0561)7702057·8 FAX:2791270 PC ID:dgpress

소나기

총학생회에 바란다

총학생회란 이름에 걸맞은 모든 학우들의 동의부터 얻어야겠지요.
△입문준비 좀 성실했으면... 수업은 꼭 들어오세요.
△선거유세를 도서관 앞에서 시끄럽고 난잡하게 하는 이유는?
△학우여러분 우리 무관심하지 마시다.
노선이나 운동권이니 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나니까요.
△학생회 지켜내고 학원자치권 쟁취하자.
△학교 6년 다니면서 마음에 안드는거 맨날 등투하고는 호지부지되는 것.
내년에는 그 소모적인것 좀 확실하게 합시다.
△부사히 별 일없이 1년을 지냈으면 좋 겠습니다.
△학생복지를 책임져 주세요.
△한총련이 우리의 전부 는 아니다.
△선출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학생들의 의견수렴하 에서 진행하 자.
△말로만 하 는 총학이 아니길.
△학교 문제 에 더 신경을 썼으면...
△학생회는 눈에 보이면 안보이든 정말 많은 일을 한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일만 보는 사람들 정말 짜증이다. 그런 사람들을 진짜 고민하는 대학생이라 할 수 있을까?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총학자체가 존재해야 한다.
△총학생회장에 떨어진 후보자들에게도 진심어린 악수를 나누길 바랍니다.
△총·알보다 빨리 학도 신경쓰고 생·명력있는 회·장 되세요!
△휴지가 없어서 남자 화장실까 흠쳐 썼어요. 휴지는 휴지걸이에 줘... 휴지가 없어서 여자 화장실까 흠쳐 썼어요. 휴지는 휴지걸이에 줘...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를 안듣게 잘해라. 실망시키지 마란 말이야...
△15대 총학은 칼부림 나면 안돼요.
△사람만 죽이지 말아줘
△공약으로 약속어 놓고 약발 안들으면 알아서 해
△애들 선거=어른 선거(?)
△바라지도 않는다.
△잘해 주시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오늘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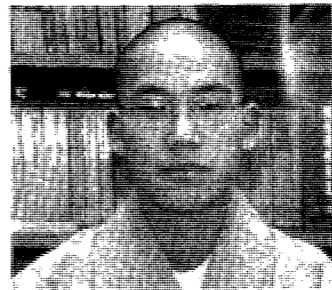
문종 스님 (경주캠 석림회 회장)

기숙사 '석림원' 건립위해 동분서주 스님들의 복지 책임지는 석림회 회장의 포부

"기숙사 건립이 스님들의 문제가 아니기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학교측과 재단측에서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석림회 회장 문종스님은 오늘도 스님들의 기숙사 '석림원'의 건립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다.
"지난해 선학과 신설 후 스님들이 대거 선발되었어요. 스님들의 수는 늘어난데 비해 학교에서는 마땅한 주거

지를 정해주지 않아 난처한 입장입니다"라며 현재 인근지역 사찰이나 하숙집에서 거주하는 스님들의 고초를 얘기했다.
비구 스님들의 기숙사 건립은 지난 1월 석림원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계속적인 모금활동으로 현재 1억 4천만원이 마련된 상태며 학교, 재단뿐만 아니라 학외의 단체에서도 많은 후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단계에 있다고 한다.

여러 단체에서 주는 기금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스님은 "학생들의 도움도 생각해 봤으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모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한 행동인 것 같아서 말이지요"라며 빗나가 웃음짓는 스님에게서 학생들을 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여학생 기숙사 복쪽에 위치한 석림원은 총건평 4백여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현대식 건물로 스님 60여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 중이다.



모금활동만으로 석림원 건립이 어렵지 않다는 질문에 "이번 석림원은 기금과 건립을 함께 생각하고 있어요, 석림원을 다 짓기 위해서는 많은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립을 지어가는 과정에서 모금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저라도 열심히 뛰어야 다른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잖아요"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스님들을 위한 마음이 엿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우들과 학교측에 부탁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글쎄요. 하루빨리 석림원이 지어졌으면 좋겠고, 이제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학교측과 재단측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석림회 스님들과 열심히 모금운동을 벌이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종스님. 그러나 그의 얼굴엔 어두운 현실보다 밝은 미래를 생각하는 눈빛이 어슬쩍 보였다.
취재부

참사람봉사단 통해 사랑의 손길 실천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정립회관에서 자원 봉사를 할 때였다. 그 곳의 선선함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실명을 들었으나 웬지 서먹하고 쑥스러운 마음은 이내 갈수록 수그러들었다. 그 날은 장애인에 대한 행사가 있던 날이었는데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이 알고 있는 정도의 아주 초보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던 난 그 곳에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보다도 많은 장애인들을 보았다. 몇몇 자원봉사자들은 웬지 무서워서 그저 한쪽 구석에 앉아 다른 봉사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다 차츰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용기를 냈다.
"과실이요! 앞서는 형식적인 봉사가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마음으로 봉사할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자원봉사가 아닌 우리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차츰차츰 일에 적응했다. 내가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무관심 분위기 투표권 행사는 당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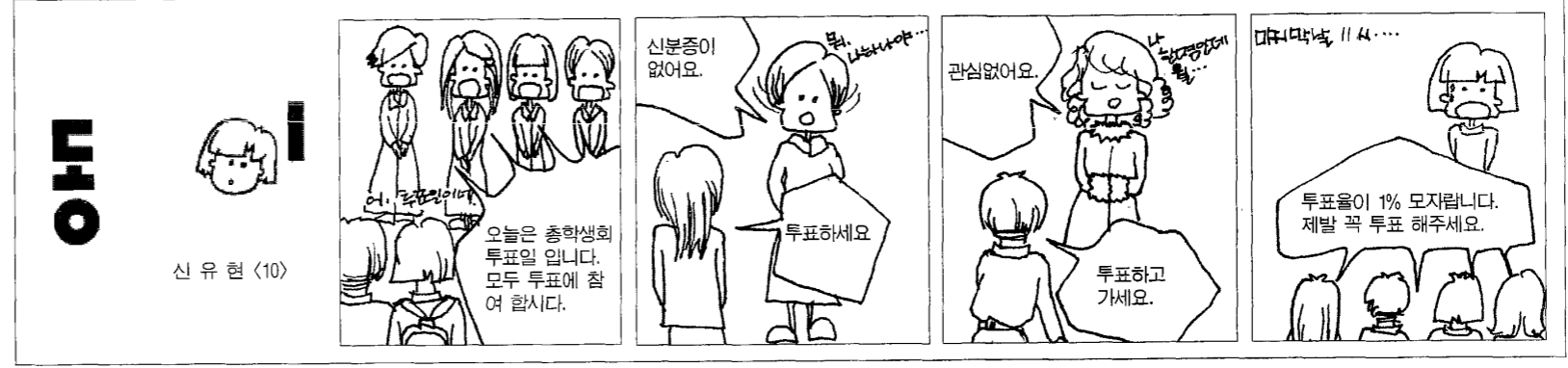
요즘 들어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몇 일전에는 각 단과대별 학생회장 투표가 실시되기도 했지만 결과를 떠나서 투표율이 50%선을 넘지 않은 단과대가 허다했다. 무관심이 계속된다면 2년 후의 선거를 이끌 새 지도자를 과연 진실하게 찾아낼 수 있겠는가?
요즘 대권주자들은 앞다투어 1위 군하기에 전념하고 있다. 경제가 폭삭 주저앉아 있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간혹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대안을 발표하지만 그간 간접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관공에 국민은 그 후보가 그 후보고려 하며 투표권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투표권은 진정한 민주주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이다. 투표권을 포기해 버리는 건 민주시민임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아무리 후보들이 마땅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한 표가 그러한 후보들 중에서 그대도 우량한 후보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걸 명심해 주길 바란다.

혹 대선뿐만 아니라 가까운 교내 총학생회 투표도 마찬가지다. '나 하나'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건 학교를 이끌 어갈 우량한 일꾼을 발굴하는데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동국대학교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해 버리는 일이다. 이런 연유에서 지난 단과대 학생회장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동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버렸는지에 대해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같이 한총련 탈퇴나 사수냐를 두고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훌륭한 지도자다. 총학생회장이 없는 지금 우리 학교는 선장없는 배처럼 그 넓은 바다에서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해 왔다. 하지만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지금 당신의 진정한 한 표로 인해 우리 동국은 새롭고 현명한 선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투표권 행사는 동국인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이 권리와 의무가 실현될 때 비로소 우리는 현명한 선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투표권 행사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외출

1. 바람이 불었다. 길 한가운데 너무 많은 잎들이 날아가곤 하였다. 서둘러 찾아든 어둠, 외투는 낙엽만큼 가볍다.
역사 뒤 기차가 바람 부는 곳으로 갔다. 골목이 시작되는 곳에 날은 의자 옹크린 여자 앉아 있다 가끔. 사랑해도 좋아요 잠시 머물러 사랑해요 바람이 불었다 잎들은 결국 구석진 곳으로 와서 좋은 길 그 끝으로 모이는가 골목은 문득, 바람을 막고 섰다.

2. 너의, 끝에서 만난 사람이 돌아가야 한다면 그래, 한번은 사랑해도 좋으리 가끔 거기까지 돌아가도 좋으니. 바람을 따라갔던 기차가 돌아와 용용거리며 섰다. 그러면 외출은 끝나도 좋은 것이다.
박병천(불교문화대 불교학과)



동약광장

축하합니다. -회원일동
△경상학부 이상원군의 21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현아! 모진 고난 속에서도 방송작가 교육원에 합격한 것을 축하한다. -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광교재하시느라 광고학과 여러번 수고하셨습니다.
△전산통계 차기 학생회장단 열심히 살아요. 영수, 영하, 기성형 수고 많았어요. -근 떨어진 짱
알립니다
△한성 동문의 만들라고 합니다. 연락주세요. BB 012-1131-5835 TEL 363-7265
△명덕고 동문회는 매일 첫째주 금요일입니다. -명덕고 7기생
그리고...
△블랙웨이와 테리의 사이버에서의 첫 만남이 아름다워지길...
△민재선배 군대 잘 다녀와요. -현철이가
△레드 파우 축하회 화이팅! 매주 일요일은 공차는 날. 차동이 늦지마라.

△후포고 1기 동문 황준태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지민이가
△은실언니의 스물네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윤경이와 은실이
△구지는 후배의 스물네번째 생일을 맞이하여 노(노)선배가 축하의 MESSAG를 띄웁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일문과 학술제 '가연제'를 무사히 마치고 된 것 축하해요. -작은 악마
△문상수님의 일본유학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몸 건강하시길...
-대해
△소리창고 공연 축하합니다.
△홍익선배 화희장 된거 축하해요. 짧은 다리로 많이 뛰어 다니세요.
-수고2 6인의 악동들
△재영아 자대 부회장 된거 축하한다.
-수고 96

수고하셨습니다
△불교문화대 선배님들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졸업하는 미션언니 한인들하는 운식선배 총여 회장님 특순이 언니 모두 사랑해요. -97배가
△플래시 감사 동아리 축하모임 회장님! 지난 학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하모니 회원 일동
△한울회 이호경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 함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14기 집행부의 건투를 빌며
-한울회 13기 精아들이
△창고 아그들. 공연 준비하느라 수고! 무진장 잘했다. -토끼짱
열심히 합시다
△맹소리 열씨미 하세요. -Mr. 광(光)
△윤희아, 영석아, 현정아, 현석아, 지후은희아, 덕년형... 우리모두 열심히 해보지꾸나. 너희들을 사랑하는 니로부터
알립니다
△27일엔 상주항우회가 있어요. 모든 상주인들은 5시30분까지 원효관 317로 오시기 바랍니다. 화비는 만원 -angella

Table with columns for '다양한 학생·문화관 그림·식당·차림표' and '동국관 교직원·학생식당 차림표'. It lists various student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s.